



자동차 Analyst 신윤철

현대차(005380)

2026 CEO Investor Day Takeaways

◎ 2030년 영업이익률 목표치 상향: 9% 이상을 향해

>> 2025 CID에서 제시했던 2030년 글로벌 판매량 목표치 555만 대는 유지. 반면 2030년 연결 기준 영업이익률 목표치 2025 CID: 8~9% → 2026 CID: 9+@% 상향. 작년에는 50% 미만으로 가정했던 2030년 HEV Mix를 올해 50%로 초과로 판매전략 변경한 것이 주요 배경. 2030년까지 철저히 미국 중심의 HEV 판매전략 강화가 예상됨. 2030년 지역별 판매량 비중 목표치: 북미 26%, 유럽 15%, 인도 15%, 국내 13%, 중국 9%, 중남미 9% 등.

>> 다만 현대차는 2028년부터 양산 예정인 Boston Dynamics의 로봇 제품군 관련 손익은 2030년 목표치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밝힘. 이는 현 지분율 상으로 Boston Dynamics 실적이 향후 현대차 연결 실적으로 귀속될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이기도 하며, 경영진 역시 현대차는 현대차그룹의 로봇 대량생산 신사업을 서포트 하는 역할일 뿐 직접적인 로봇 제조 및 판매는 결국 현대차와 별도의 사업주체가 영위할 것임을 2026 CID에서 강조함. 이에 주가 측면에서 현대차 2026 CID가 현대차그룹의 로보틱스 모멘텀 재점화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어려웠다고 평가.

◎ 제네시스 라인업 파워트레인 다변화: HEV, EREV

>> 2026년 9월 GV80 HEV 출시를 시작으로 현대차의 대표 고부가 라인업인 제네시스에도 하이브리드 시스템 첫 적용 예정. 2027년 초에는 제네시스 EREV 첫 출시 예정(모델명 미정). 현대차는 2026 CID에서 2031년까지 글로벌 럭셔리 자동차 시장(MSRP: 80~299K USD)이 연평균 10% 성장할 것으로 전망. 이에 2030년까지 글로벌 제네시스 리테일 거점을 50% 확대하여 제네시스가 현대차 수익성 개선의 큰 축을 담당하게 될 것임을 밝힘.

>> EREV는 현대차가 자체 설계한 미드니컬 NCM 배터리 탑재 예정. 동일 부피의 LFP 대비 에너지 밀도는 30% 상승하며 동등한 에너지 밀도의 하이니켈 NCM 배터리 대비 충전시간은 40% 단축한 성과. 최근 출시된 GV90에는 TRP(Thermal Runaway Protection) 기술이 최초 적용됐으며 이는 어떠한 배터리 폼팩터 및 케미스트리 조합에서도 열전이 원천 차단하는 기술. GV90을 시작으로 전 차종 확대 적용하여 BEV 화재 안전성 제고 예정.

◎ 총 주주환원율 35%+ 정책은 2027년까지 유지

>> 최소배당금 10,000원(분기배당 2,500원 포함), 최소 배당성향 25%+ 정책을 유지하며 총 251만 주(우선주 포함)의 잔여 기보유 자기주식 전량 소각 역시 기존 계획대로 진행할 예정임을 밝힘. 현대차의 주주환원율 35%+ 정책은 2025~2027년의 3개년에 걸쳐 적용되는 정책이므로 2026 CID에서 기존의 주주환원 정책을 중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할 근거는 없었음. 만약 총 주주환원율의 상향을 비롯한 현대차 주주환원 정책에 변화가 발생한다면 2028년부터일 것이며, 발표 시점은 2027 CID로 기대하는 것이 타당.

>> 다만 현재 총 주주환원율을 35%+로 제시하고 있음에도 실질적으로는 35%에 맞추고 있는 실정. 또한 자기주식 매입 및 소각 규모를 3년간 최대 4조원으로 고정해둔 채 추가적인 주주환원의 가능성을 배당의 형태로 열어둔 설계는 여전히 아쉬운 대목. 내년까지 총 주주환원율은 유지하더라도 배당 & 자기주식 매입 및 소각의 Mix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. 특히 최근 타산업군에서도 화두가 되었던 주주환원안이 자기주식 매입 및 소각보다 배당 중심으로 설계될 경우 배당의 규모와는 무관하게 주가 측면에서 결국 투자자의 호응을 얻지 못하는 추세.

현대차 2026 CEO Investor Day에서 발표된 핵심지표 요약

역대 최대 매출 달성 2025 & 2026년 상반기	5.55M 2030년 글로벌 판매 목표	60% 2030년 xEV 판매 비중	100+ 2030년까지 신차 출시 All-New Tucson Santa Fe EREV GV80 Hybrid Brand-New GV90	#3 판매량
2.3x 시가총액 2026 누적 vs. 2025 평균	6.0% 2030년 M/S	+1.27M 2030년까지 생산능력 확대		#2 수익성 그룹 기준 2026년 상반기
35%+ 총 주주환원을 2025-2027년 목표	북미 10+ 하이브리드 80%+ 부품 현지화율	유럽 5종 신규 BEV ↓30% EV 배터리 원가	제네시스의 새로운 10년 1 st HEV & EREV 35만대 판매 · 40+개국 시장진출 플래그십 SUV 2030년까지	
9%+ 영업 이익률 2030년	인도 1.1M 생산역량 글로벌수출거점	한국 미래 기술 혁신 허브	파트너십 기반 성장 Waymo, Motional, Amazon, BostonDynamics, TVS	
	중국 In China, For China	아프리카 & 중동 차세대 성장 시장		

자료: 현대차 2026 CEO Investor Day, 키움증권 리서치

현대차 원가절감 로드맵: 2030년까지 3%p 절감 목표

Lifecycle 원가혁신 1.5pp	재료비 절감 1.0pp	현지화 0.5pp
공용화 확대 - 신규 개발 차량 제조, 디자인 사양 등 공용화 확대 양산 차량 원가 절감 - 기존 양산 차량 출시 이후에도 원가 절감 아이템 발굴 지속 및 글로벌 수평 전개 실시 생산 공정/정비성 향상 - 저효율 공정 개선 통한 생산 효율 증진 - OTA 확대 및 고전압배터리 정비성 향상	2030년 하이브리드화 재료비 20% 절감 - HEV 물량 확대 통한 규모의 경제 효과 극대화 - 시장별 특성 고려 신규 HEV 투입 2030년 EV PE 시스템 재료비 30% 절감 - LFP 배터리 확대 및 재료비 절감 - 차세대 모터/인버터 등 PE 시스템 개발	해외 공장 원가 경쟁력 확보 - 투입 차종 확대 통한 신규 공장 가동률 상승 - 사양 공법 최적화 및 핵심 원소재 현지 발굴 부품 현지화 확대 - 공급망 안정화 및 지역별 규제 대응 - 지역별 원가 최적화 부품 도입

자료: 현대차 2026 CEO Investor Day, 키움증권 리서치

현대차 중장기 수익성 목표: HEV 중심으로 판매전략 수정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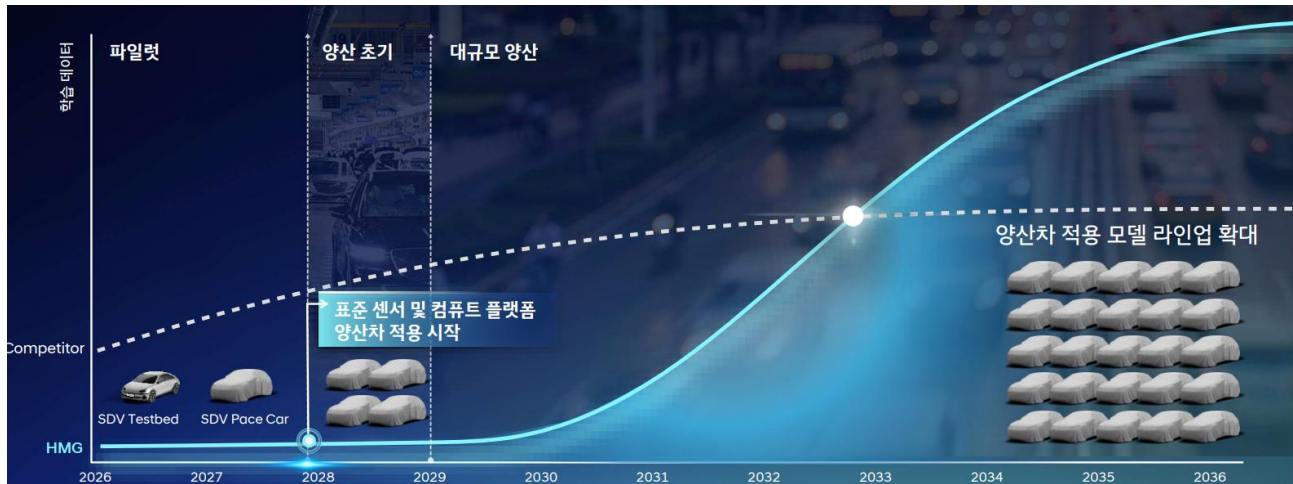
자료: 현대차 2026 CEO Investor Day, 키움증권 리서치

현대차 자체설계 미드니켈 NCM 배터리: EREV 가격 경쟁력의 핵심



자료: 현대차 2026 CEO Investor Day, 키움증권 리서치

2028년 SDV 센서 표준화, 2029년 새만금 AI 데이터센터(GPU 5만 장 기반) 자체 운영을 계기로 현대차그룹의 데이터 플라이휠 가속 시작. 2033년 기점으로 주요 경쟁사의 학습데이터량 추월 목표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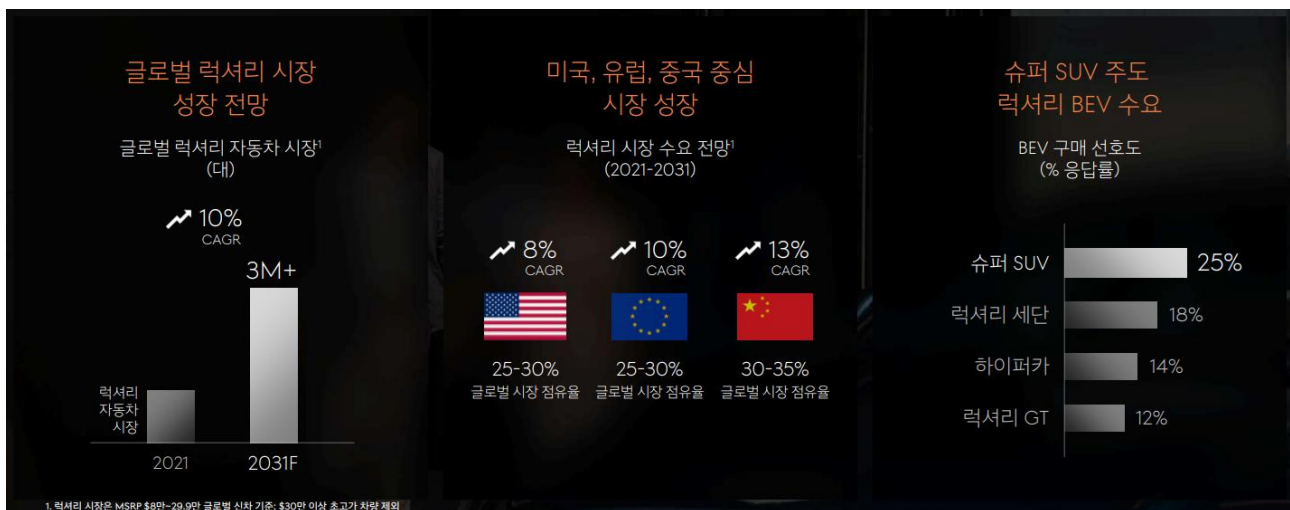
자료: 현대차 2026 CEO Investor Day, 키움증권 리서치

제네시스: 2030년까지 270개 이상 글로벌 리테일 거점 구축 예정(현재 대비 50% 증가)



자료: 현대차 2026 CEO Investor Day, 키움증권 리서치

2031년까지 글로벌 럭셔리 자동차 시장 연평균 10% 성장 전망



자료: 현대차 2026 CEO Investor Day, 키움증권 리서치

Compliance Notice

- 당사는 8월 26일 현재 상기 언급된 종목을 1%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-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.
-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동 자료상에 언급된 기업들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-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
고지사항

-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,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,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
-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, 유가증권의 종류, 종목,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,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
-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, 복제, 전시, 배포, 전송, 편집, 번역,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·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.